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9월 후보도서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이화 지음 | 산처럼 | 280쪽 | 값 10,000원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역사풍속기행》 등 쉽고 재미있는 역사서를 집필해 온 저자가 모처럼 착심한 에세이집이다. 역사적 인물을 포괄하는 한편, 해방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체험이 담겨 있다.

《아주 특별한 만찬》 김숙경 지음 | 아름다운언어 | 280쪽 | 값 10,000원

시공의 경계를 넘어 데리다와 아인슈타인과 호킹과 백남준과 최한기와 각속스님과 노자

가 화자로 등장, 풍성한 죄담을 벌인다. 철학, 과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이 혼재하며, 상반된 논리들이 공존하는 유목적 사유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김경일 지음 | 푸른역사 | 400쪽 | 값 16,500원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 사회에 나타난 '신여성'을 근대성의 프리즘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다. 신여성이란 무엇인가를 필두로 신여성의 자기정체성 문제, 성과 사랑, 신체와 단발, 스포츠, 소비와 유행, 지식과 교육, 일과 직업 등을 섭렵한다.

《경계에서 말한다》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공저 | 생각의나무 | 260쪽 | 값 12,000원

일본 제일의 사회학·여성학 연구자와 한국의 대표적 여성·청소년문화의 실천적 담론가가 교환한 서신 묶음집이다. '시대의 혼미함'과 '변화의 속도감'을 겨워했던 한국의 저자는 바다를 오간 서신을 통해 '소소한 삶의 재미와 공감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고 고백한다.

《푸른 사다리》 이옥수 지음 | 사계절 | 248쪽 | 값 7,500원

'21세기형 달동네'인 '서초동 법원 단지 앞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한 소년의 굴곡 많은 성장과정을 줄기삼아 도시 빈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소설이다. 지난해 아동문학가로 첫발을 내딛으며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주목받은 전업주부 출신 신진작가의 첫 장편소설이다.

《백범 김구 평전》 김삼웅 지음 | 시대의창 | 628쪽 | 값 16,500원

삼균주의 건국강령과 민족통합, 평화와 민주와 자유, 궁극적으로 문화국가를 지향했던 20세기의 거인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담았다. 각종 기록을 통해 그의 애국정신, 민주주의 정신, 통일 사상, 그리고 '문화국가론'의 편린을 살펴보고 있다.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조희연 지음 | 아르케 |

468쪽 | 값 19,000원

한국사학계가 민주주의로 이행한 과정을 조망하고, 급진민주주의로의 도전의 '정상성'을 역설한다. 민중정치, 신자유주의에 대응한 행동논리,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운동, 공무원노조, 사회운동과 정책역량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정상' 회복을 위한 미시적 해부도 이어진다.

《쌀과 민주주의》 천규석 지음 | 녹색평론사 | 262쪽 | 값 8,000원

농민운동가이자, 대구 한살림 이사인 저자는 'WTO의 수입 개방압력으로 농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생명주권과 직결되는 우리쌀마저 개방압력으로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개탄한다. 책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우리쌀을 어떻게 지켜낼까를 고민한다.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정민·박수밀·박동욱·강민경 공저 | 휴머니스트 | 282쪽 |

값 15,000원

다산 정약용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천자문을 읽혀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무질서한 글자 나열로 천지와 색채(‘천지현황’)를 오기는 따위의 천자문식 한자학습을 배제하는 책이다. 단순한 한자나 고사풀이 대신 '집적'이나 '물색' 등 평범한 한자어의 숨은 뜻과 문화적 의미를 살펴본다.

《해삼의 눈》 쓰루미 요시유키 지음 | 이경덕 옮김 | 뿌리와이파리 | 604쪽 | 값 33,000원

얕은 바다에서 평상 15미터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해삼의 '눈'으로 본 이색적인 아시아·태평양 문명교류사다. 현대평양의 수천 년 역사, 수만 리 바닷길의 '삶'을 해삼과 바닷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비춘다.

《거기, 당신?》 윤성희 지음 | 문학동네

사람 사이에 서로의 상처를 '별난 놀이'를 통해 치유하고 치유받는 것. 책은 〈잘 가, 또 보자〉, 〈유탄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거기, 당신?〉 등의 소설에서 그런 '놀이'를 해보이며, 인간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탈출구를 찾아낸다.